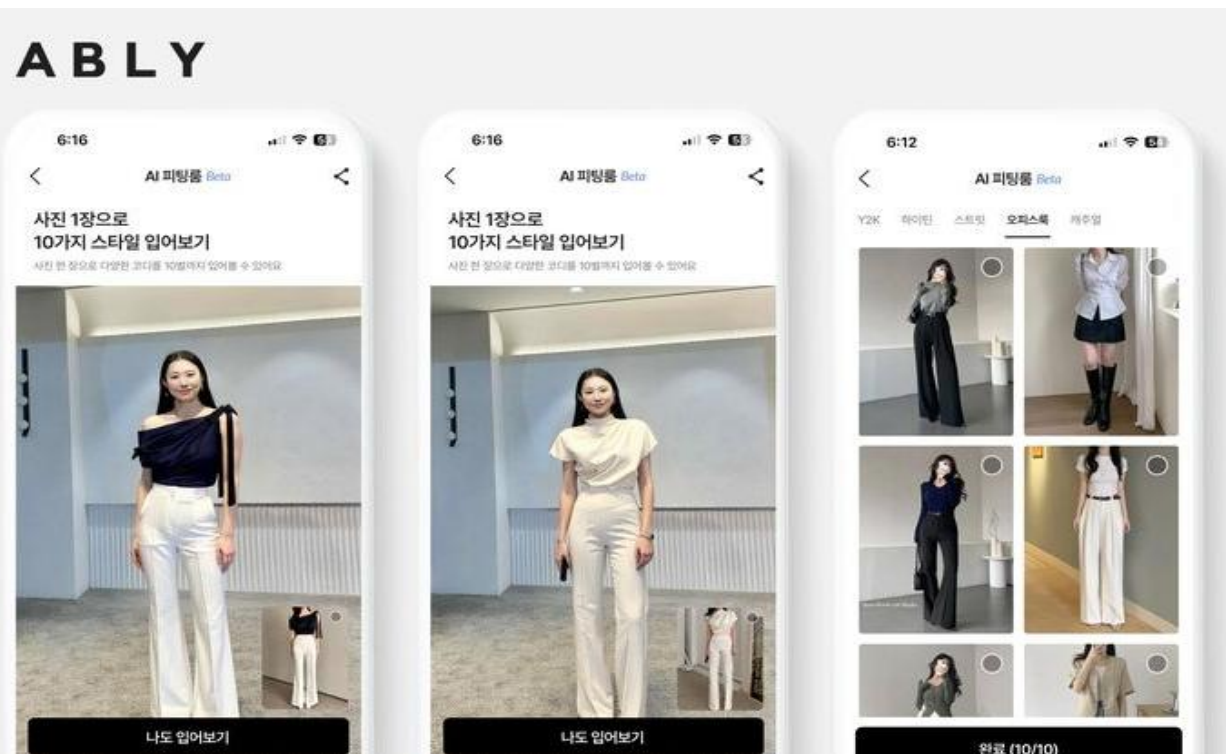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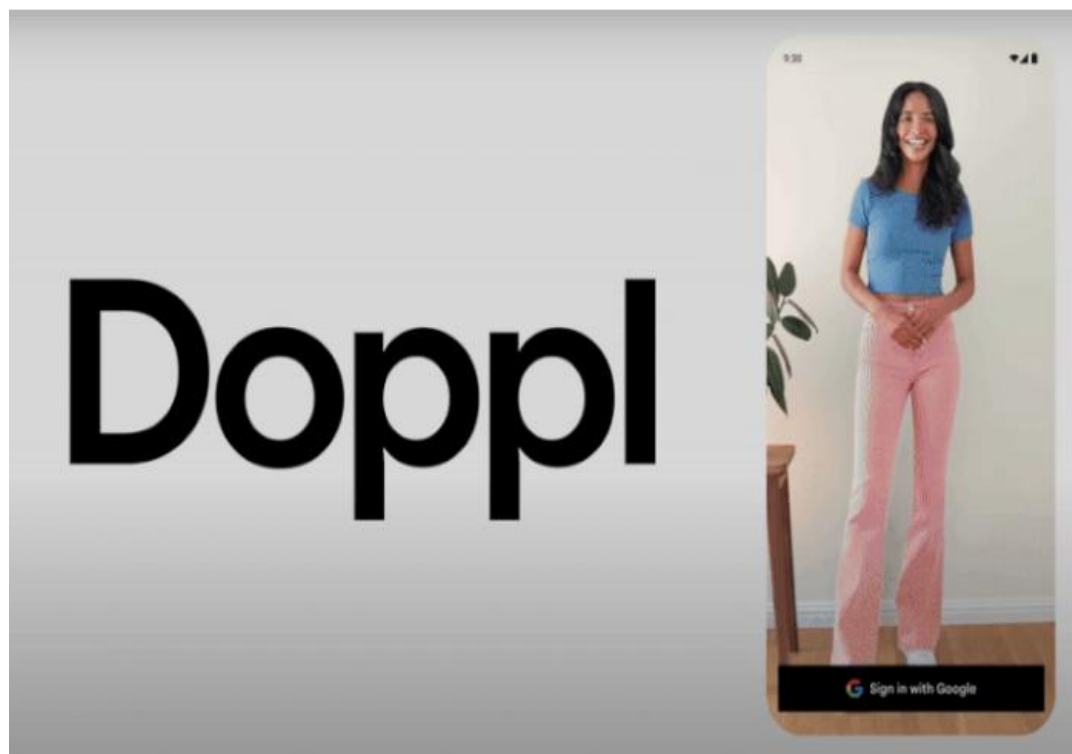


# TEXTILE FASHION TREND ISSUE

DYETECREVIEW 다이텍섬유리뷰



FASHION TECH

## '입어보는 경험'까지 앱으로... 패션플랫폼, 'AI 가상피팅' 시동

구글 '도플' 부터 에이블리까지 국내외 서비스 속속 등장

패션 커머스의 '최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가상 피팅' 서비스 개발과 출시가 패션 업계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26일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어스튜트 애널리티카 (Astute Analytica)'는 글로벌 AI 가상 피팅 시장 규모가 2024년 57억5천만 달러(한화 약 8조원)로 평가했고,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21.20% 성장해 2033년 322억9천만 달러(한화 약 4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I 가상 피팅은 패션 업계에서 고정비로 인식돼 온 반품 비용 절감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스튜트 애널리티카는 AI 가상 피팅이 반품률을 최대 25%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가상 피팅 서비스 도입 움직임은 국내외에서 이미 활발하다.

현재 AI 가상 피팅 기술을 가장 실제에 가깝게 구현하고 있는 기업은 구글(Google)이다. 사용자가 전신 사진과 원하는 옷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실제 착용한 듯한 모습을 가상으로 구현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도플은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탑재해 매장의 실제 피팅룸에서 옷을 입어본 듯한 실감 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에이블리가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 기반의 'AI 피팅룸' 서비스를 최근 론칭하고 시범 운영 중이다. 사용자가 입어보고 싶은 패션 스타일을 최대 10개 선택하고 자신의 전신 사진 1장을 등록하면 사진 속 자신의 얼굴·배경을 기반으로 다양한 옷 스타일을 입어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FASHION TECH

# 아이웨어, 패션 넘어 기술로... 국내업계, 글로벌서 '스마트 혁신' 가속

## 불황 속 '립스틱 효과' 타고 안경 소비 증가

스마트 안경 시장이 약 3배에 달하는 고성장을 예고하면서, 국내 아이웨어 산업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기술과 패션이 결합된 스마트 안경이 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스마트 기기로 주목받으며,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거나 자체 기술을 강화하며 새로운 시장 선점에 나서는 모습이다.

15일 시장조사업체 IMARC에 따르면 스마트 안경 시장 규모가 2024년 186억달러에서 2033년 536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작은 만족을 추구하는 '립스틱 효과'가 안경 소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스마트 기기로 주목받는 스마트 안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아이웨어 업계는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거나 신규 매장을 열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프라다, 구찌 등 해외 명품 브랜드가 주도하던 국내 아이웨어 시장은 2014년 젠틀몬스터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연 같은 해, 유명 배우의 착용이 화제가 되며 브랜드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젠틀몬스터는 연내 구글과 함께 신제품 스마트 안경을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들이 합리적인 가격과 세련된 디자인을 앞세워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이웨어는 단순한 시력 보조 도구를 넘어 하나의 패션이자 장치로 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스마트 안경 개발이 적극 나서고 있다. 메타는 스마트 안경을 2021년부터 출시해왔으며, 최근에는 오클리 브랜드를 통해 AI 스마트 안경을 선보였다. 또한 메타는 지난해 9월 홀로그램 증강 현실 기능이 구현되는 AR 스마트 안경 시제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구글은 삼성전자와 함께 스마트 안경을 개발하고 있고, 애플도 내년 말 애플 생태계와 더 정밀하게 연동되는 스마트 안경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클로버추얼패션, AI 기반 원단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 공개

정확도 향상 및 효율 향상 기대

글로벌 디지털 의상 디자인 기업 '클로버추얼패션'은 원단 디지털화 시스템 '클로 지팍 키트'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팍 키트는 클로버추얼패션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기술력이 합쳐진 형태로, 커터와 드레이퍼, 스캐너 세 장치로 이뤄져 있다. 클로버추얼패션은 이번 지팍 키트를 통해 패션 업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원단 제공 업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원단 디지털화 방식은 측정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차가 많이 발생했다. 지팍 키트는 AI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원단 디지털화 속도를 크게 높여준다. 또 부자재 공급업체 및 원단 공장은 고품질의 디지털 원단 표현을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지팍 키트는 높은 정확도로 수작업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클로버추얼패션이 보유한 방대한 원단 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화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클로버추얼패션의 기존 3D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와 완벽하게 연동되도록 설계돼, 고품질의 디지털 원단 파일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김지홍 클로버추얼패션 글로벌 대표는 "패션 및 섬유 업계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팍 키트는 각 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이라며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고객들이 지팍 키트를 활용해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패션 트렌드를 읽는 원단 기획 멤버십 플랫폼



FASHION·AI

## 패션게이트, 패브릭 큐레이션 플랫폼 '원단고' 런칭

## 패션 기업 원하는 유사 원단 AI 기반 추천

패션게이트(대표 윤영선)가 패브릭 큐레이션 플랫폼 '원단고'를 런칭했다. 원단고는 원단업체와 패션브랜드(또는 디자이너,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B2B, B2C 플랫폼으로서 기본 원단에서부터 수입, 특수 원단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윤영선 패션게이트 대표는 "'왜 원단을 찾는 소비자는 많은데 원단은 판매가 어려울까?'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원단을 발굴하고 플랫폼에 입점을 유도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오픈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서 "원단고가 패션 업계의 혁신적인 진화가 됐으면 좋겠다. 원단업체와 소비자들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원단을 찾고 구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의 패션 트렌드를 읽는 원단 기획 멤버십 플랫폼을 표방하는 '원단고'는 패션브랜드, 기업, 디자이너가 원하는 유사 원단을 AI 기반의 추천 알고리즘 시스템을 맞춤형으로 추천한다. 국내 원단 전문 기업들이 사전에 국내외 소재 정보를 제공하면

국내 소재, 패션, 트렌드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기반으로 추천, 효율적이고 정확한 소재 정보를 제안 받을 수 있다.

원단 마다 코드를 부착, 고객사들이 요청하는 아이템, 컬러, 트렌드에 맞게 소재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든 구매 단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매 즉시 각 사에 배송되는 시스템이다. 컨설팅 및 기획 부문은 프리미엄 서비스로, '찾아주세요' 등 일부 유료 서비스 시스템도 마련했다.

이은희 트렌드인코리아 대표는 "이제 원단이 패션을 선도하는 시대"라면서 "글로벌 소재 트렌드를 한 눈에 보고, 원단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유사 원단 추천을 경험해 보는 것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선 대표는 "연내 입점 업체 총 100개 사, 베이직 회원 1,000개, 프리미엄 회원사 200개는 런칭 첫 해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향후 추후 수주 매칭 팝업스토어, 패브릭 팝업 콘서트 등을 기획, 오프라인 매칭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DX 이어 AX 시대... 섬산련, AI·디지털 세미나 성황

섬유파션 제조 미래 여는 AI·디지털 혁신 세미나에 업계 175명 참석

**패션 제조의 미래  
AI와 디지털 혁신**

일시 | 2025년 7월 17일(목) / 14:00 ~ 17:00  
장소 | 섬유센터 2층, Tex+Fa Campus 라온지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프로그램 | 총 170분

| 시간                | 주요 내용                                                                   | 연사                                               |
|-------------------|-------------------------------------------------------------------------|--------------------------------------------------|
| 14:00~14:30 (30') | 제조 분야의 디지털트윈 및 AI 최신 기술과 동향                                             | 서경민 교수<br>한양대 산업경영공학과                            |
| 14:30~15:20 (50') | 의류 제조와 데이터 통계를 결합한 디지털 전환                                               | 신인준 대표<br>(주)시제<br>SIJE                          |
| 15:20~16:50 (90') | 제조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AI기반 디지털 혁신 전략<br>- 기획, 디자인, 개발, 소싱, 생산 관리의 AI/DT 솔루션 소개 | 한승경 대표, 김유진 이사<br>(주)센트릭소프트웨어<br>CentricSoftware |

\* 일부 프로그램 및 연사는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패션넷([www.fashionnet.or.kr](http://www.fashionnet.or.kr)) 또는 QR코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한국섬유산업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Textile Industry

문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융합실 gyahn@kofori.or.kr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가 지난 17일 섬유센터에서 개최한 섬유패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과 미래 전략 제시를 위한 '패션 제조의 미래: AI와 디지털 혁신 세미나'가 성료했다.

첫 번째 섹션은 서경민 한양대학교 교수가 '디지털트윈 및 AI 기술 동향'을 주제로 디지털 트윈의 개념과 시뮬레이션 기반 시스템, 군집 제어 등 최신 기술을 제조업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무인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예측 모델링 및 최적화 기술이 섬유 제조 환경에서도 경쟁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섹션은 의류 생산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반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신인준 시제 대표의 발표가 있었다. '의류 제조와 데이터 통계를 결합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IoT 기반 생산 추적 디바이스 'Monolog(모노로그)', SCM+MES 통합 SaaS 플랫폼 'Monolis(모노리스)', AI 기반 의류공장 운영 엔진 'MoAI(모아이)' 등을 소개하며, 의류 생산 현장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 공정 자동화를 통해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는 전략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마지막 세션은 '제조사 경쟁력 향상을 위한 AI기반 디지털 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연과 AI/DT 기반 PLM 솔루션 시연이 이어졌다. 특히 AI 기반 트렌드 분석과 디자인 자동화, 시장 데이터 기반 수요예측 등의 적용 사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이 제조사의 기획력 향상, 리드타임 단축, 수익성 강화에 실질적인 경쟁력을 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준영 산업융합실장은 "앞으로도 국내 섬유패션 제조업체들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와 업계가 직면한 디지털 전환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정보와 기술을 소개하는 제조DX 이슈매거진 'DX MADE'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he logo for Rush University System for Health, featuring a stylized 'R' icon followed by the text 'RUSH Connect' in a serif font.

Rush Connect

Explore our expanding array of digital-first care options, backed by the Midwest's highest-quality health system.

TEXTILE TECH

# Rush University System for Health, Fabric과 협력해 AI 기반 온디맨드 케어 플랫폼 출시

## A Seamless Digital-First Patient Experience

의료 서비스 제공 관련 업체인 Fabric은 시카고 최초의 의료 기관인 Rush University System for Healt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Rush Connect+가 구축되며, 이는 온디맨드 및 구독 기반 디지털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Rush Connect는 Fabric의 AI 어시스턴트와 가상 진료 플랫폼을 활용하여 환자가 진료에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임상 팀에 용량 확장, 효율성 향상, 고품질 진료 제공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 수요 증가와 의료진의 소진으로 과부하 상태이며, 2024년 딜로이트 연구에 따르면 거의 모든 환자가 편리한 가상 진료 옵션을 원하지만 접근성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 시스템이 여전히 워크플로우를 방해하고 환자에게 장벽을 형성하는 단편화된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다. Fabric의 AI 기반 기술과 임상 인프라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도록 설계되었으며, Rush와 같은 시스템은 품질 저하 없이 환자 요구를 충족하는 확장 가능하고 지속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

Rush Connect는 원활한 디지털 경험을 통해 환자의 첫 증상부터 치료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핵심은 Fabric의 24시간 연중 무휴 AI 어시스턴트로, 환자를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안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Rush Connect+ 구독 환자의 경우, Fabric의 비동기식 가상 진료 플랫폼이 몇 분 만에 허가받은 의료 제공자와 원활하게 연결하여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마트 분류와 온디맨드 케어 제공을 결합한 Rush Connect는 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접근성을 확대하며 환자와 의료 제공자 모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기사 및 사진 출처

1. 뉴시스, '입어보는 경험'까지 앱으로... 패션플랫폼, 'AI가상피팅' 속속 시동, 25년 7월 26일
2. 서울파이낸스, 아이웨어, 패션 넘어 기술로...국내업체, 글로벌서 '스마트 혁신' 가속, 25년 7월 15일
3. 서울경제, 글로벌추얼패션, AI 기반 원단 디지털 자동화 시스템 공개, 25년 8월 1일
4. 어패럴뉴스, 패션게이트, 패브릭 큐레이션 플랫폼 '원단고' 런칭, 25년 7월 21일
5. 한국섬유신문, 섬산련, '패션 제조의 미래: AI와 디지털 혁신 세미나' 개최, 25년 7월 21일
6. HIT CONSULTANT, Rush University System for Health, Fabric과 협력해 AI 기반 온디맨드 케어 플랫폼 출시, 25년 7월10일